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을 어떻게 유지 하느냐 입니다.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끼리 나누는 E-mail 중에서도 이곳의 익숙치 않은 환경으로 인하여, 연약해져 가고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 이곳 현실 입니다. 무더운 날씨, 생소한 먹거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키는 건강 관리 방법은 단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변 교회가 있는 마을에 들어 서면 상당수의 아이들이 눈병에 걸려 있거나 또는 피부 질환이 있음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 까닭은 공중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일상에서, 수저가 아닌 맨 손으로 식사를 하고,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맨 발로 생활 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 속에 있는 이 (lice)를 잡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들의 머리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는 광경을 어디에서든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어른들과 아이들은 자유롭게 어디에서든지 일을 봅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온 몸은 항상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들을 대할 때마다 웃음으로 반가히 맞이하며,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려 주고, 손을 잡아 주지만, 마음 속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음식을 나눌 때에는 마치 큰 일이나 치루는 것처럼 대단한 결심(?) 가운데 즐거운 표정으로 맛있게 먹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와도 정답게 손을 잡을 수 있고, 이들이 먹는 것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 한 구석에는 환경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의 갈등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표현이 된다면 더이상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 부족한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롬 14:20)

한국에 계신 누님으로부터 이곳에 꼭 필요한 '약품'들을 소포로 받았습니다. 각종 피부병 치료제, 안약, 머리 이 (lice) 치료 샴푸, 구충제등 기본적으로 이 곳에 꼭 필요한 약품들입니다. 귀한 약들이지만 저희의 무지로 인하여 혹시라도 잘못 사용될까 염려가 되어서, 보내 온 모든 약품들의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공부하여 저희 나름대로 분류를 해서 지금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눈 병으로 인하여 어린이 토요 성경 학교에 참석할 때마다 지저분한 천으로 임시로 한 쪽 눈을 가리고 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동의하에 제일 먼저 이 아이의 눈에 안약을 넣어 주고 간절히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이 아이의 눈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저희를 볼 때마다 건강한 눈을 크게 뜨며 확인을 해 줍니다. 지난 5월 첫 주일 예배 후에는 모든 교인이 일렬로 줄을 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광고를 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인 '전교인 구충제 먹는 날' 이기 때문 입니다. 약의 남용이나 오용이 되지 않도록 약품 설명서에 기록되어 있는대로 설명을 하고, 제가 먼저 구충제를 먹어 안전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지 목사님으로부터 복용이 가능한 아이들 모두 구충제를 먹었습니다. 갑자기 모두가 건강해진 것 같아서 서로를 보며 즐거워 합니다.

이곳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손을 아주 자주 씻는 것 뿐입니다. 이곳은 워낙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찬물로 더위를 식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이어서, 제가 자주 손을 씻어도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자주 손을 씻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강 관리가 이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슥 13:1)

아무쪼록 맡겨진 사명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 yeonji_park@wycliffe.org



아주 쉽게(?) 새로운 열(10) 가정을 교회로 인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마침내 최종 10명의 아이들을 선정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 살림이나 어린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고, 또한 적은 수입이라도 벌기 위하여 허드렛 일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듯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려워 선뜻 결심을 못하는 중에 자녀의 학비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해 준다는 것과 또한 무관심에 방치된 이들을 토요일과 주일에는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설득으로 동의를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부모님들도 주일만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잘 키우기로 약정하고, 마침내 지난 주에 아이들 및 부모님들이 모두 함께 모여 첫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예배후에는 가정별로 부모님과 아이들을 소개하고, 온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또한 모두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오래동안 기다렸던 새 책가방과 학용품도 풍성히 준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 모두가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지만, 정성껏 준비한 다과를 나누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었습니다. 교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면, 다음 주에 이들이 다른 가족까지 데리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아닌 걱정을 하여 많이 웃었습니다.

이곳은 6월 15일이 새학년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이미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련 학비를 월별 분납할 일정을 확인하고, 선생님들께 아이들을 잘 부탁 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학교에 처음 가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어 집니다. 이 아이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름답게 잘 성장을 해서 오늘의 해변 교회를 기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곳 가정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다섯명의 자녀는 기본이고, 아홉명의 자녀가 있는 집도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10명은 겨우 두 가정의 아이들에게나 가까스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너무 적은 규모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의 가정을 교회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아쉽지만 한 가정에 한 아이로만 제한을 하여서, 아이들이 많은 집에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학비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매일 한끼라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형편을 가까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일들이지만,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10명의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무쪼록 바라건대 이제 겨우 10명으로 시작 했지만, 이 일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과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 끝에서 심히 연약한 주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눅 16:9)**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성경 번역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